

'광주 發' 코로나 감염...경기까지 확산

광복사 찾은 시민 8명·접촉 4명 확진

광주시 "20일 마지막으로 법회 안 열려"

광주 광복사 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호남을 넘어 경기도까지 확산됐다. 이 절에 들른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은 8명이 됐고, 이들과 접촉한 확진자 4명을 더하면 12명으로 늘어났다.

경기 파주시는 지난 23일 광주 동구 광복사를 찾은 20대 여성 A씨(파주 15번)가 29일 오전 코로나 19에 확진됐다고 발표했다.

A씨 모친(음성), 전남 21번째 확진자 B씨, B씨 여동생(광주 34번)은 23일 오전 주지스님(광주 36번)과 상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광주 39·41번째 확진자, 전북 27번째 확진자 등 3명도 이날 광복사를 방문했다고 파악했다. 광주 39·41번째 확진자는 매

일이 절을 찾는 신도로 전해졌다.

이후 천도제를 드리기 위해 26일이 절에 들른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복사에 방문해 확진판정을 받은 이들 8명 외에 이들과 접촉한 가족 3명(전남 22·23번, 광주 35번)과 시민 1명(광주 37번) 등 4명도 지난 주말 동안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광주시는 광복사에서 월 3회 정기법회가 열리지만 지난 20일 39명이 참석한 법회가 마지막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법회 참석자 39명 중 27명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2명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이다.

주지스님이 출강하는 불교대학 강의 참석자 38명에 대한 검사도



광주에서 27일과 28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1명의 감염 장소로 추정되는 광주 동구의 광복사의 내부 모습.

진행 중이다. 23일 강의 수강생 27명 중 23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방역당국은 감염경로와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종교 소모임 등 집합행위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경

고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10일 이후 광복사를 방문한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거주지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종교 소모임 등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신봉우 기자

해남 국도서 3중 충돌사고...8명 병원 이송

28일 오후 2시17분쯤 전남 해남군 송지면 한 국도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차량 2대를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30)와 두 차량 운전자 B씨(64), C씨(36)를 포함해 총 8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B씨의 SUV를 1차로 충돌하고 이후 SUV를 뒤따르던 C씨의 승용차도 들이받았다.

소방당국 등은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A씨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료부족 진도 해상서 표류하던 낚시어선 구조

전남 진도 해상에서 연료 부족으로 표류하던 낚시어선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29일 북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4분쯤 전남 진도군 독거도 북서쪽 7km 앞 해상에서 낚시어선 J호(9.77톤·승선원 22명)가 연료 부족으로 표류중이라는 신고 A씨(59)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진도파출소 연안구조정, 경비정을 급파해 민간어선과 함께 진도 서방향으로 안전하게 예인 조치했다.

J호는 28일 오후 4시34분께 추자도에서 출항, 낚시 조업을 종료한 후 진도 서방향으로 입항 중이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의 경우 다중이용선박으로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필히 출항 전 기관점검과 함께 연료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남성 SUV에 치어 숨져

인천 삼산경찰서는 음주 후 도로위에 누워있는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한 A씨(29·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4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한 SUV로 B씨(73)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 치인 B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 여친 유인해 성폭행 남성 결국 구속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연인시절 짝은 불법촬영물을 지워주겠다고 전 여자친구였던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체포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도망 혹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이 있을 때 발부된다. A씨의 혐의는 특수협박 및 강간으로 알려졌다.

유령법인 통장 보이스포싱에 넘긴 일당 송치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포 통장을 보이스포싱 조직에게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A씨(29)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유령법인 명의 계좌 18개를 보이스포싱 조직에 넘긴 혐의다.

그는 계좌 1개당 30만~50만원씩 받고 보이스포싱 조직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령법인을 만들어 개설한 계좌를 A씨에게 개당 20만원에 팔아넘긴 일당 B씨 등 6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0명 감염 광주 '광복사'...코로나 발생 통제 없어

신도 30~40명 참여 월 3회 법회...추가 감염 우려



광주·전남에서 지난 27일과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12명 발생한 가운데 이중 10명의 감염지로 추정되는 광주 동구의 광복사 입구.

주말 새 광주와 전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명 가운데 10명의 직간접 감염지로 추정되는 광주 동구의 작은 사찰인 '광복사'는 29일 오전 조용한 모습이었다.

동구 중심사길에 위치한 무등산 국립공원 출입구에서 왼쪽으로 낮은 숲길을 따라 100m만 올라가면 보이는 광복사는 입구에 '생활인의 불교대량'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곳이라는 언론 보도와 달리 이날 절 입구에는 출입제한 안내문이나 이렇다 할 통제도 없었다.

절 안으로 들어가자 지난 부처님 오신날에 매단 것으로 보이는 연등이 가득했으며 맞은편 법당은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뿐 조용한 모습이였다. 절은 좌우, 앞뒤 4칸으로 구성돼

있으며 흡사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것처럼 보였으며 오른쪽 종무소는 굳게 닫혔다.

절 입구 바로 옆 건물에서 방문이 열린 곳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 다가오니 "나가 달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전달됐다.

"스님 이시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그는 얼굴을 보이지 않은 채 "나도 2주간 자가격리중이다"면서 "물어보고 싶으면 관할 구청인 동구청에 물어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광복사는 태고종 소속으로 약 65년 전에 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월 3회 열리는 법회에는 30~40명의 신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광복사 주지스님이 광주 36번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추가 감염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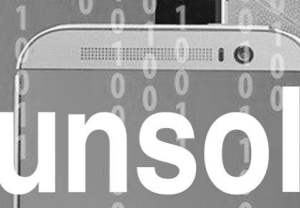
그는 현재 (사)광주불교교육원에서 15주 과정으로 운영하는 불교대학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60대 자매 등 광주와 전남, 전북, 경기도 파주까지 광복사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이슬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